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1.(수) 14:00 배포 2026. 11. 11.(수) 13:30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4차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 관리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6년 2월 출범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협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데이터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 정책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위원>

- **공공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데이터이용자 그룹**: 동국대학교 이영섭 교수,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 언론기관
- **민간기업**: 네이버, 신한카드, 우리금융지주, 카카오, SKT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26.5월 조승래의원 발의)」 시행에 대비하여 국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특히 데이터의 수집, 보관, 관리 등 보유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공급측면과 실제 데이터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데이터 수요측면을 파악하여 국가데이터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데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황조사 방안
2.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수요 발굴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데이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현황조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 · 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국가데이터의 수집 · 관리 · 보유현황과 지정 · 관리 · 연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수요 발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연계·활용으로 인해 가치가 높아지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실제 데이터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데이터 관리 대상이 정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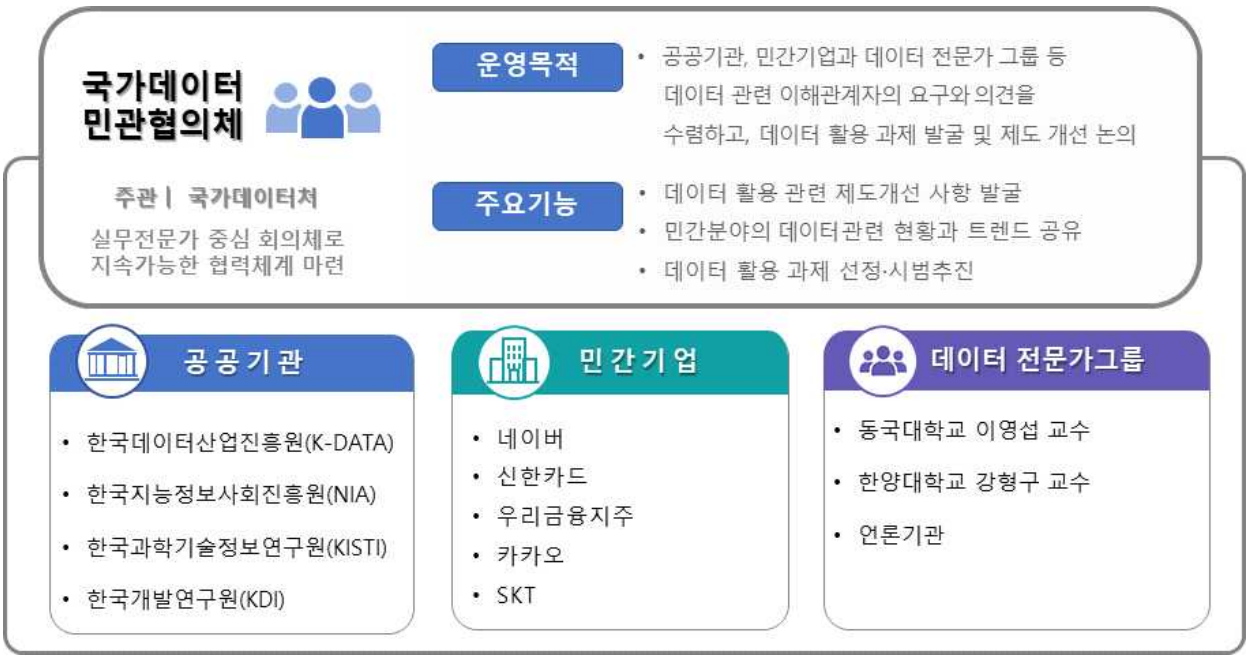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기반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철희 (042-481-2186)
		담당자	사무관	김용균 (042-481-25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구성도



참고2 사진자료 (제4차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4차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